

스포츠 스타 축구 도전기 '몽쳐야 찬다'

JTBC 매주 목 밤 11시 방송

야구·배구·마라톤 전설들
조기축구 새로운 도전
안정환 새내기 감독
"모두가 에이스 될 수 있게"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JTBC 예능 '몽쳐야 찬다' 제작발표회에서 출연진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앞줄부터 방송인 김용만, 전 마라톤선수 이봉주, 전 레슬링선수 심권호, 사격선수 진중오, 전 축구선수 안정환, 전 야구선수 양준혁, 전 농구선수 허재, 전 씨름선수 이만기, 방송인 김성주, 이종격투기선수 김동현. /연합뉴스

야구, 농구, 배구, 씨름, 테니스, 마라톤 등 각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는 스포츠 스타들이 축구선수 겸 방송인 안정환 감독의 지도 아래 뭉친다.

지난 13일 방송을 시작한 JTBC '몽쳐야 찬다'는 대한민국 스포츠 '일인자'들이 대결을 통해 조기 축구계의 새로운 전설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은 스포츠 예능이다.

이만기(씨름), 허재(농구), 양준혁(야구), 이봉주(마라톤), 여흥철(체조), 심권호(레슬링), 진중오(사격), 김동현(이종격투기) 등이 선수로 출연하며 '몽쳐야 찬다' 시즌1에 출연했던 방송인 김용만, 정형돈, 김성주가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다.

안정환은 18일 마포구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몽쳐야 찬다' 기자회견에서 신장 감독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소감을 밝혔다.

새내기 감독인 그는 선배 스포츠 선수들을 하나의 팀으로 호흡을 맞추게 하고 팀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임무를 맡았다.

안정환은 "예능으로 축구를 좀 더 친숙하게 보여줄 수 있고, 프로그램 안에 씨름, 농구, 야구 등 모든 종목이 있어서 다 같이 여러 스포츠 종목이 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그런 취지가 좋아 감독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몽쳐야 찬다'는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날고 기는 선수들이 축구 룰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당황해하다가 연습을 거듭

하며 점차 성장해가는 모습이 관련 포인드다.

안정환은 "우리 팀엔 에이스가 없다. 에이스가 나올 수 있을진 모르겠다"고 웃으며 "제 모든 것을 걸고 선수들이 에이스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이어 "한 우물만 파서 성공한 선수들이라 다른 걸 접해보지 못한 것 같다. 축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걸 알려드리려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초반이라 선배 선수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 제게 많이 혼날 것 같다"며 웃었다.

중계를 맡은 김성주는 "중계하는 제 입장에선 에이스가 보인다"며 "이봉주는 심장이 4개인 것처럼 뛰어나고 여흥철은 체조 선수라 그런지 어마어마한 점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만기, 허재, 양준혁 등은 "안 감독에게 미안하다", "축구 생각보다 어렵더라" 같은 말들로 웃음을 자아냈다.

성지경 책임피디(CP)는 "몽쳐야 찬

다'가 40~50대 중년 남성들이 패키지여 행을 통해 친구들과 어딘가로 떠나는 모습을 담았다면 '몽쳐야 찬다'는 안정환이 감독으로 재도전을 하고 각 분야 레전드

선수들이 축구라는 낯선 분야에서 처음부터 재도전하는 모습들을 담고 있다"며 '재도전' 키워드를 강조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방송.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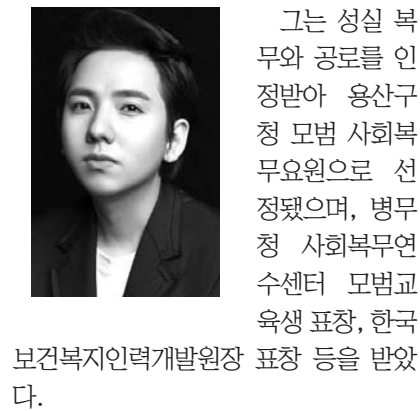
팝페라 임형주, 소집해제 ... "많은 것 보고 배웠다"

팝페라 테너 임형주(33·사진)가 18일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 해제된다.

지난 2017년부터 용산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임형주는 이날 오후 6시 근무지인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체 복무를 마친다.

임형주는 복무 중 재능 기부로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개막식에 출연해 캠페인송 '저 벽을 넘어서' (Beyond The Wall)를 불렀다.

또 근무지 업무와 별개로 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한국가곡교실 '싱싱 라이프' (Sing Sing Life)와 실버합창단의 특별 강사 겸 지휘자로 재능 기부를 했으며 피아노 반주자 개런티도 이곳에 기부했다.



그는 성실 복무와 공로를 인정받아 용산구청 모범 사회복무요원으로 선정됐으며,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모범교육생 표창,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표창 등을 받았다. 임형주는 소속사를 통해 "복무기간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됐다. 이를 자양분 삼아 더욱 진일보한 음악을 들려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BS, 3개국 합작 6·25 다큐 '끝나지 않은 전쟁'

25·26일 밤 10시 방송

KBS 1TV는 한국전쟁 69년을 맞아 오는 25일과 26일 밤 10시 한국전쟁 다큐멘터리 '끝나지 않은 전쟁' (Korea: Never Ending War)을 방송한다고 18일 예고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KBS, 미국 공영방송사 WETA, 영국 공영방송사 BBC, 프랑스 다큐멘터리 전문 배급사인 ZED가 함께 제작했다.

다큐멘터리는 1945년 2차 대전 종전에서 2019년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를 한국 전쟁을 중심으로 연대기를 다뤘다. 국제적 시각에서 한국전쟁의 시작, 전개과정, 정전협상등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국내에서 제작된 한국전쟁 다큐멘터리와 차별성을 갖는다.

1부는 2차 대전 종전에서 1950년 12월 까지 상황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2부는 1950년 1월에서 2019년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남북 간, 북미 간 갈등과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끝나지 않은 전쟁'은 2017년 국제 다큐멘터리 전문마켓에 공동제작이 시작됐으며 기획단계에서 영국의 BBC, 프랑스의 Arte France, 독일의 ZDFINFO 등 유럽 주요 국가 방송사가 공동제작 또는 선구매로 제작에 참여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호주, 캐나다, UAE, 이스라엘 등 10여 개국에 선판매된 글로벌 다큐멘터리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난 4월 29일 공영방송 PBS를 통해 미국 전역에 방송됐으며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 존 조의 내레이션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영원한 동백아가씨' 이미지 데뷔 60주년 다큐 방송

TV조선 오늘 밤 10시 콘서트 뒷이야기 공개

TV조선은 19일 밤 10시 가수 이미자의 노래 인생 60년을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 '영원한 동백아가씨'를 방송한다고 18일 예고했다.

TV조선은 앞서 지난달 1일에도 이미지 다큐멘터리 '이미자 노래인생 60년-내 노래 내 사랑'을 방송했다.

'영원한 동백아가씨'에는 평소 보기 힘든 무대 뒤 이미지 모습과, 데뷔 6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리기까지의 과정이 담겼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한국 현대사의 굴곡마다 뜻뜻하게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해외 동포들,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 월남 파병 용사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조국이 그리울 적마다 이미지 노래를 들



으면서 외로움을 버텼다는 이들은 콘서트를 찾아 무대 뒤 대기실에서 이미지를 만났다.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던 스타를 만난 이들은 이미자의 사인을 받고 응원을 들으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이미자 역시 "작은 영웅들과 함께 데뷔 60주년을 지리서 행복하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이미자는 또 최근 '동백아가씨 노래비 공원'을 돌아보며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봄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단, 하나의 사랑(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내 친구 요리리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봄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전국이장회의(재)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2019 코리아컵 제주 국제제조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30 구해줘! 홈즈 1~2부 스페셜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독 2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디큐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토크쇼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봄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오늘밤 김제동	00 단, 하나의 사랑	05 살맛나는 세상	00 절대 그이
11	35 UHD 숨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재)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재)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명탐정 피트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파 피그(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9:00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07:00 로보카 폴리	13:00 지식채널e	19:30 생방송 판다다
07:15 꼬마버스 타요	13:10 최고의 요리비결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20:40 세계테마기행
07:45 페파 피그	14:30 꼬마버스 타요(재)	<시청자와 함께하는 3부>
08:00 똥똥똥 유치원1~2	15:00 출동! 피자마 삼총사	21:30 한국기행
08:30 몬가트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나의 친애하는 동물 친구들 3부 저 푸른 초원 위에>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시즌4	15:45 출동! 슈퍼웬스(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00 마샤와 곰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 시즌4(재)	22:45 극한직업
09:30 원더볼즈	16:15 세미와 매직큐브	23:55 EBS 초대석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스페셜	16:30 똥똥똥 유치원1~2(재)	24:50 글로벌 특선다큐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6년생 일시적인 반목이나 불협화음이 보인다. 48년생 각오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60년생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72년생 아직 실행할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음을 알라. 84년생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행하는 것이 실속이다. 행운의 숫자 : 31, 91	42년생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54년생 차분하게 지켜본 연후에 처리해 나가는 것이 맞다. 66년생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끝맺음만큼은 알맞 것이다. 78년생 역마가 중중하니 몸이 돌아도 부족할 판이다. 90년생 기세가 한창 성하여 극상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69, 64
37년생 현황에 맞게 조율하고 모색하자. 49년생 끝나는 마당에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61년생 새옹지마가 될 수도 있다. 73년생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85년생 찾으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쓸데없는 것만 눈에 띄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5, 25	43년생 과잉 신뢰는 진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55년생 목척하는 바와 동떨어져 있다면 무의미하다. 67년생 기저부터 문제점이 보인다. 79년생 인적 관계에 있어서의 윤행유가 필요하다. 91년생 충분한 의사 전달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59, 80
38년생 당해 문제가 원할치 못하니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50년생 듣기만 해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62년생 오히려 인한 구설수가 보이니 제반사에 삼가라. 74년생 으뜸세를 보이다가 소강상태에 빠지는 형태이다. 86년생 생 위력 앞에서 놀라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3, 56	44년생 변수가 보인다. 56년생 양자택일해야 할 길목에서 팔이 갈듯하게 되리라. 68년생 해결점을 찾으면서 지리멸렬했던 소강상태를 벗어나는 판세에 놓인다. 80년생 성숙한 관계로 이끄는 것이 이익이다. 92년생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도다. 행운의 숫자 : 66, 36
39년생 시각적으로만 판단하면 오류가 생긴다. 51년생 매끄러운 기교가 자연스럽다. 63년생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니 마음을 가다듬고 자제하는 것이 낫다. 75년생 행복이 넘쳐흐르겠다. 87년생 반드시 확인해야만 급락하는 형세를 방지한다. 행운의 숫자 : 96, 48	45년생 모나지 않고 동글게 처리하자. 57년생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겠다. 69년생 방치 하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81년생 분명하게 유념해야 할 것이다. 93년생 충동적인 판단 하에서 기인한다면 후회가 따른다. 행운의 숫자 : 88, 47
40년생 예리한 판단이 필요하다. 52년생 임시방편적이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느니라. 64년생 바쁘게 뛰는 만큼 소기의 결실이 따른다. 76년생 범위가 넓어지거나 높은 위치로 조정될 수도 있다. 88년생 파급 효과까지 예상하고 판단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29, 31	34년생 냉정하게 정리하자. 46년생 발 빠르게 대응 조치하면 문제점은 해결 될 것이다. 58년생 재수발원하면 효과를 본다. 70년생 여러 가지 불편함이 합쳐져서 매우 곤혹스럽겠다. 82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못하니 정도를 조절하라. 행운의 숫자 : 86, 04
41년생 현실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53년생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이가 생긴다. 65년생 앞서 가려 한다면 오히려 약화 되리라. 77년생 머지않아 진면모가 드러날 것이니라. 89년생 평생시의 기량을 발휘한다면 능히 해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7, 97	35년생 합리성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47년생 이진투구 하는 형상이다. 59년생 밤심한다면 호기가 약재로 변하리라. 71년생 실존적인 방언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 83년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형국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37, 1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